

여수박람회 앞바다 수질 1~2등급 개선

숭어·광어·우럭 떼로 몰려왔어요

조직위·여수해양만청
바다쓰레기 178t 수거



여수 앞바다에 몰려든 숭어떼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 개막을 40여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박람회장 앞바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최근 대대적인 정화 활동으로 박람회장 인근 바다가 깨끗해지면서 물고기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에 따르면 박람회 주무대인 '빅오'와 주제관 일대 바다에 숭어, 광어, 우럭 등 물고기들이 무더기로 서식하고 있다는 것. 특히 떼를 지어 다니는 숭어는 육안 인근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 조직위와 박람회 공사 관계자들이 반기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박람회장 해양 청소를 시작해 오염원이 크게 줄어들자 물고기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조직위가 이곳에서 처음 수질 오염도를 측정했을 때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1.6~2.3mg/L(2~3등급)였는데 최근에는 0.9~1.9mg/L(1~2등급)로 개선됐다. 물고기가 살 수 없었던 더러운 물이 생생 서식에 적합한 1~2등급으로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적이다.

또 조직위 등은 그동안 박람회 인근 바다 55만㎡를 대상으로 바닷속 쓰레기 178t을 수거했다. 이를 통해 해저에서 썩어가고 있던 자동차 타이어, 선종기 등 생활쓰레기와 폐어구 등을 말끔히 치웠다.

물도 맑아졌다. 2008년 바닷속 평균 가시 거리는 2.7m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3.9m로 좋아졌다.

인근 강과 바다에서 밀려드는 쓰레기를 차단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만청은 국비 24억원을 들여 76급 바다청소선을 건조하는 등 모두 4척의 청소선을 투입해 인근 해역을 청소하고 있다. 또 박람회 기간에는 부산과 마산, 여천어항협회에서 청소선을 지원받아 모두 7척으로 청소선을 늘려 바다 쓰레기를 치울 계획이다.

또 인근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박람회장 북방과 제 등지의 바다 위에 부유쓰레기 차단막 500m를 설치한다.

조직위 환경에너지팀 남궁현 주무관은 "갈수록 수질이 좋아지고 있어 박람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남도의 바다 풍경을 선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새야구장 건설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광주 새야구장 건립공사 실시설계 최종보고회가 3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설계 당시 3800석을 가릴 수 있도록 했던 지붕면적이 4700석을 가릴 수 있게 확대되고, 야구박물관 면적도 기존의 255㎡에서 445㎡로 늘어나는 등 수정·보완된 내용이 보고됐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너무 추운 봄... 농작물이 안자란다

녹차·마늘·양파 생산량 10% 줄 듯... 道 대책마련 부심

길어진 꽃샘추위로 녹차, 양파, 마늘 등 일부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해 저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과수와 채소 등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평균기온은 2.2℃로, 평년(3.9℃)보다 1.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평년 4월 초순이면 70%가량 새잎이 나왔던 녹차의 생육이 더디고, 이는 지난해 통해 피해가 발생한 녹차밭에서 더욱

심한 상황이다. 또 마늘과 양파도 생육길이 37~38cm로 평년 대비 2~3cm가량 작고, 잎의 수도 6~7매로 평년보다 0.5매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봄 날씨가 농작물 생육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녹차, 마늘, 양파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양파는 지난해산 저장량이 충분해 수급에는 차질이 없지만, 마늘은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어들어 철저한 생육 관리가 필

요하다. 이 밖에 보리, 밀 등도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생육 상태가 저조하고 매실도 개화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5일 오후 도청 정철실에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기술원과 전문가, 농업인 등과 함께 '초봄 이상기상 대응 영농대책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에서는 작물별 생육상황 점검과 수급 전망 등을 진단하고, 초봄 이상기상 대응 작목별 영농관리 대책 등을 논의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박람회 거리공연 '유스라이브 음악경연대회'

7~8일 흥대앞 2차 공개오디션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기간 거리 공연을 하게 될 밴드들을 뽑는 '유스라이브 음악경연대회' 공개 오디션 현장을 무료로 관람할 관객을 모집한다.

조직위는 '유스라이브 음악경연대회' 공개 오디션(2차 예선)을 오는 7~8일 서울 흥대 앞 라이브 클럽 '사운드홀릭 시티'에서 열고, 관객 300명(한 회 기준)을 선착순 초대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4일까지 유스라이브 음악경연대회 공식카페(http://yfp.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개 오디션에서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26팀이 직접 제작한 창작곡과 리메이크곡을 선보이고, 게스트로는 인기 밴드 '좋아서 하는 밴드', '카피머신'이 출연한다.

한편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3개팀 중 박람회 거리 공연을 통해 최종 1팀을 뽑아 1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동부취재본부=김청희기자 chkim@

행안부 "순천 정원박람회 운영비 삭감하라"

인력 감축·서비스 질 저하 우려

내년에 열리는 순천국제정원박람회(4월 20일~10월 20일) 이하 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의 운영비 등을 삭감하라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원활한 정원박람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정원박람회의 운영·홍보비 등 시비 부담을 최소화한 뒤 대회를 추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중앙투융자심사는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정원박람회 총 예산 1716억원 중 순천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252억원이고, 이 중 홍보·운영비는 264억원이다. 81만1000㎡의 넓은 부지에서 6개월 동안 열리기 때문에 상시 운영인력이 최소 500명 이상 필요해 운영비 부담이 크다.

하지만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어, 서비스 질이 크게 떨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중앙투융자심사에서는 여수시가 지난 2006년 국비까지 반납하며 포기한 뒤 최근 재추진하고 있는 '전라좌수영박물관 건

립사업'(161억원)에 대해 재검토 판정이 내려졌다.

또 전남도가 신청한 '사라리 아일랜드 조성사업'(1324억원)은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도록 조건부 승인됐고, '3G-BIO 연계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사업'(225억원)은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도의 '실감미디어 산업 R&D 기반 조성 및 과학화산사업'(1847억원)과 광양시의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400억원)도 조건부 승인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18기념재단·강운태 시장

"아웅산수치 여사 선거 승리 축하"

5·18기념재단과 광주시가 최근 미얀마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5·18기념재단은 3일 성명을 내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선거를 승리로 이끈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민족민주동맹(NLD)에 진심어린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이번 선거 승리는 미얀마의 민주회복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지난 2004년 5·18기념재단에서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공동명의로 축하전문을 보냈다.

강 시장과 윤 의장은 축전에서 "이번 선거 승리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온 수치 여사와 NLD, 그리고 미얀마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2004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수치 여사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시 간에 맺어진 소중한 인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홍행기자 redplane@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시 비서실장에 최현주씨



광주시는 3일, 신임 비서실장에 최현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임명했다.

신임 최 비서실장은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남구 부구청장, 관과 시 자치행정국장, 환경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7월 지방이사관(2급)으로 후진을 위해 명예퇴직했다.

신임 최 비서실장은 외유내강형의 성격으로, 시정에 밝고 언론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터워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광주시정의 비전과 성과를 외부에 알리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항고혈압 제제와 항고지혈증 제제의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 (수축기 혈압(SBP) 130mmHg 이상, 이완기 혈압(DBP) 80mmHg 이상,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 Cholesterol) 100mg/dL 이상)
- 대상자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검사를 실시합니다.

2. 참여기간

- 본 임상시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에 적합한 경우 약 12~14주 총 4~5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면 8주 동안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제공되며, 정기적인 검진과 임상시험과 관련된 각종 혈액검사, 뇨검사, 심전도검사 및 소정의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기관: 광주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문의처: 010-4095-1850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철저·한·독일인의 장·원·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062)573-5106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 기록

1. 대상 - 협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2. 한도 - 300~7000만원
3. 금리 - 연-5.9% 미만 (천만원당 월5만원미만)
4.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연장가능)

❖과다대출, 연체(등급미달)자도 가능!!
❖고금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644호)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리완벽의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담보/무보증/무조회)
- ◆대출금리 | 연 6% 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액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